

금천구 '주민자치 3.0' 공론장 역량 키운다

3일 교육 개최... 이론·실습 통해 실제 운영 과정 체득
주민총회 의제 발굴 연계... 동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



지난달 26일 바른 식생활 교육관에서 열린 '광명, 장하고 발효하다' 된장학교의 첫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명시

전통의 맛과 건강 담은 광명시 '된장학교' 개강

경기도 광명시가 전통 식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달 26일 바른 식생활 교육관에서 시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 장하고 발효하다' 된장학교의 첫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조리 실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통 발효 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제조 비법을 직접 전수 받는 '체험형 전문 교육'으로 기획됐다.

이날 교육에는 '장하된장'의 이창순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전통 된장과 간장의 제조 비법을 전수했다.

특히 시는 장의 핵심인 '발효와 숙성'을 위해 열린시민청 옥상에 전용 장독대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원활해 장이 익어가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11월 '장 나누기' 수업까지 시민들이 담긴 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장 담그기를 시작으로 장 가르기, 장 나누기로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발효의 전 과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게 된다.

광명=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부천시가 택시요금 부천페이 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

"부천페이로 택시요금 결제 가능" 개인택시 2484대 이달부터 시행

경기도 부천시가 부천페이 사용처를 교통 분야로 확대하고,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코나아이, 부천개인택시조합과 '부천시 택시요금 부천페이 결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용의 부천시장을 비롯해 변동훈 코나아이 사장, 조봉기 부천개인택시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페이 결제 연동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력,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혜택을 높이고, 침체한 택시 산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입 대상은 관내 개인택시 2,484대 전체다. 시는 가맹점 등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3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민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부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부천=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서울시 금천구가 '금천형 주민자치 3.0' 정책추진과 제5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3일 '주민자치회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올해 1월 새롭게 위촉된 제5기 금천구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해 사무국, 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지난해 공론장 운영 교육의 높은 만족도와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교육

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주민 참여와 속의 과정을 강화해 주민총회 의제 발굴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론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 교육에서는 제9회 금천구 주민총회 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 운영의 이해'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역할과 구조를 학습한다.

이어 실습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실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운영 역량을 체득하게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제5기 주민자치회 출



금천구가 지난해 개최한 '주민자치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교육'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등 참석자들이 조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구

범에 맞춰 공론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공론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동별 통계자료 제공과 의제 발굴 방법 지원 등 찾

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생활밀착형 주민 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2분이면 배우는 심폐소생술"... 서초구 체험형 교육 도입

보건소 1층에 자가학습 키오스크 설치... 누구나 즉시 실습
119 신고부터 AED 사용법까지... 혼자서 학습·평가 가능



서초구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에도 응급처치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서초구보건소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CPR) 자가학습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가 서초구보건소 1층 로비에 심폐소생술(CPR) 자가학습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심폐소생술(CPR) 자가학습 키오스크는 화면 안내 영상에 맞춰 압박 마네킹으로 CPR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이다.

실습 시간은 약 2분 정도 소요되며 이용자는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의사호출 확인 △가슴압박 위치·속도 유지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행동 요령을 단계별로 파

라하며 익히게 된다. 특히 마네킹에 내장된 센서가 가슴압박 깊이와 리듬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단순히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자세를 반복해 '몸으로 익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안내에 따라 이론 학습부터 실습·평가, 결과 저장까지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는 CPR 키오스크 체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소 상설 교육과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 신청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연계 절차도 마련했다.

키오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예약 없이 누구나 보건소에 방문해 즉시 체험 가능해 민원 대기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로비에 이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키오스크 정기 소독·점검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 짧은 시간에도 심폐소생술을 손쉽게 배울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응급처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서대문구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실' 이달부터 운영

관내 100개 학급 선정 한국어질리언협 방문 진행
어린 시절 생명존중 교육으로 반려문화 기반 마련

서울시 서대문구가 어린이들이 동물보호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2026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대상은 5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이며 관내 100개 학급을 선정해 연령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동물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어질리언협에서 학교와 유치원 등을 방문해 여건에 따라 교실이나 강당, 운동장 등에서 운

영한다. 교육은 △강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 △강아지 행동의 의미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강아지 만져보기-안아보기-기분 표현해 보기 △반려동물 공공 예절(엠펙트) 퀴즈 맞히기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

참여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직접 소통하는 이 같은 교감 체험을 통해 동물의 감정과 신호를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며 책임감을 기른다.

구는 이번 교육이 아동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집은 13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 반려동물지원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현 구청장은 "어린 시절 형성된 생명 존중 의식은 평생의 가치관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공감 능력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서대문구 동물보호교실에서 어린이가 강사의 지도 아래 강아지와 교감하고 있다. 서대문구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생활체육 접근성 높인다

서울시 마포구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 '마포누구나운동센터'를 운영하며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에 나섰다.

3일 마포구에 따르면 센터를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건강을 가꾸는 기반 시설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마포누구나운동센터'는 이름 그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장애로 인해 시설 이용에 제약받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구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2024년 4월 문을 연 '마포누구나운동센터' 공적면 연면적 384.69㎡ 규모다. 지하 1층은 장애인과 노인, 일반 성인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 지상 1층은 장애·비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생활의 한 부분이다"며 "마포누구나운동센터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 없이 구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구로구 "버려진 자전거,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지난달 26일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열린 '지(G)페달' 업무협약식에서 장인홍(가운데) 구로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가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넓히고 녹색교통 이용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녹색교통 이용 인식 개선 프로젝트 지(G)페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G)페달'의 'G'는 구로(Guro), 녹색(Green), 재생·창출(Generate)을 뜻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녹색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는 26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서울구로살터지역자활

녹색교통 인식 개선·교통취약계층 지원 재생자전거 100대 연말까지 보급 예정

센터와 '지(G)페달'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지(G)페달'은 거리나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정비해 재생자전거로 제작하고 교통취약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활 이동 수단이 필요한 주민의 이동 편의도 높

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구민 홍보를 담당한다.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요처와 지원 대상을 발굴·선정하며 서울구로살터지역자활센터는 자활 근로 인력을 연계해 재생자전거를 생산·보급하는 운영 실무를 맡는다. 구는 민간협치 실행사업 예산으로 10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했으며 연말까지 재생자전거 100대 내외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